

인디언 추장 머리새 ‘후투티’...사계절 텃새로 안착



카멜레온처럼 머리 댕기깃 감정표현 음표 그리듯 날아...모노 뮤지컬 연상

인디언 추장 같은 머리 장식을 한 새가 있다. 이름은 ‘후투티’. 이름 또한 참 인디언스럽지만 놀랍게도 우리말이다. 훗훗하고 운다고 후투티로 학자들이 명명했다고 한다.

후투티는 러시아나 몽골부터 아프리카나 유럽까지 넓게 분포하고 우리나라엔 여름 철새로 찾아와 5마리 정도를 번식하고 가을에 떠나는데 요즘에는 겨울에도 여기저기 보이는 사계절 텃새이기도 하다. 후투티가 왜 따뜻한 남녘을 마다하고 겨울에도 우리나라에 머물게 됐는지는 물론 그 새만 아는 일이겠지만 일단 몇백 킬로를 이동하는 자체가 낯은 새들에게도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본능 탐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예전에 일부 왜가리나 흰뺨검둥오리들이 ‘죽든지 살든지 어디 한번 이동하지 말고 살아보자!’ 결심한 게 이제 우리나라 하천의 최강자로 살아남았듯 모험적인 젊은 개체가 ‘그래 여기도 새를 사는 곳인데 한번 견뎌보자!’하고 다부진 결심만 한다면 어떤 새든 대부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도 정 견디기 힘들면 가진 것도 없는 홀몸인데 다시 먼 길을 떠나면 그뿐이다. 계절이 바뀌어 힘겹게 찾아온 다른 무리들은 그들을 보고 아마 고개를 가우뚱할 것이다. 서로 대화가 통한다면 ‘야 여기 좀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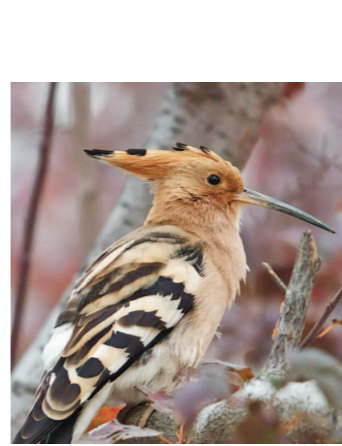
아? 먹이는 어떻게 구해? 사람들이나 다른 새들이 안 괴롭혀?’라고 수많은 질문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다 차츰 다른 개체들도 ‘그래! 그럼 긴 여행도 지겨워지던 참이니 나도 한번 여기서 정착해 볼까?’하고 따라서 결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사람과 사람이 대개 비슷하듯 동물과 동물들도 서로 다 비슷비슷하다.

후투티는 그 특유의 머리 댕기깃으로 카멜레온처럼 감정을 표현한다. 놀라거나 바람을 느낄 땐 쪽 펼치고 평화 시에는 부채처럼 접어둔다. 멋지게 보이는 댕기 깃은 실은 ‘나 당신 땀에 긴장하고 있어!’라는 의미이다. 대개 단독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다른 새들보다 조심성이 그리 많지는 않다. 아마도 자기의 찬란한 댕기 깃을 레이터로 착각하는지는 모르겠다. 설마 그런 기능이 있으려나? 아무튼 그 댕기 깃이 하도 특이해서 이스라엘엔 전설로 남아 있기도 하다. ‘옛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사막에서 무더위에 힘겨워할 때 어디서 후투티 무리가 나타나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왕은 이에 대한 감사로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씌워주었는데 오히려 이 금관이 사람들의 사냥 목적이 돼 모두 죽게 생겼다. 이에 다시 왕은 그들에게 황금빛 벼를 내려주어 금관을 대신하게 했다. 하지만 후투티는 옛 영화가 그리워 물이 고인 곳에 가면 꼭 이 벼를 금

관인 듯 쪽 펼치면서 옛 추억에 빠져들곤 한다고 한다.’ 멋진 전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조가 후투티가 됐나 보다. 이스라엘은 국기 상·하단에는 굵은 파란 줄이 그려져 있고 이 또한 후투티의 날개와 벼에도 그려져 있는 무늬와 유사하다. 후투티를 낚으는 세라북 혹은 얼룩말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후투티가 날면 올리브색 몸체, 하얀 날개 위에 검은 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댕기 깃의 끝에도 검은 줄무늬가 나 있다.

후투티는 스스로 동지를 만들지 않고 참새처럼 남이 만들어 놓은 구멍을 알뜰히 사용한다. 동지 아래는 깔집도 거의 깔지 않고 누가 보기에 대충 새끼를 키우는 것 같지만 하루에 수백 번씩 왕복하며 벌레를 잡아다 새끼들을 키우는 승고한 부모애를 보이는 광경을 매년 4~6월경 천년 경주의 숲에서 엿볼 수 있다. 그들이 동지를 선택하는 건 거의 풍수지리사 이상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 까치들이 튼튼하고 바람이 적은 동지 터를 고르는 것과 똑같다. 후투티는 날아갈 때 마치 직박구리처럼 물결모양으로 리드미컬하게, 흡사 음표를 그리듯 날아간다. 그의 멋진 댕기 깃과 나는 모양 그리고 집시처럼 자유분방한 삶은 마치 아름다운 배우가 혼자서 펼쳐는 눈부신 모노 뮤지컬 같다.

최종욱 (수역사)



△후투티
(Eurasian hoopoe, Common hoopoe, 오디새, 추장새)
- 학명 : Upupa epops
- 분류 : 척삭동물 > 조강 > 파랑새목 > 후투티과 > 후투티
- 크기 : 체중 56~88g, 몸길이 약 28cm, 꼬리 15cm
- 식성 : 잡식, 나비, 파리, 꿀벌, 딱정벌레, 거미, 땅강아지 등
- 수명 : 야생 평균 8~10년(일반적으로 약 5년 전후)
- 서식지 : 러시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 번식 : 4~6월 5~8개의 알 산란, 20~27일 후 이소
- 천적 : 매, 부엉이, 고양이, 뱀
- 멸종위기등급 : 최소관심(LC : least-concern 출처 : IUCN)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